증권 다이제스트

하나금융투자

11일까지 ELS 3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11일까지 일반 쿠폰보다 더 좋은 조건의 리자드 쿠폰을 주는 더블찬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OXX50), 홍콩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연 5.4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261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OXX50) 홍콩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연 6.7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262회'도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연 6.1% 50억 한도 ELS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0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1279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6.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신한e랩 서비스' 오픈

신한금융투자는 8일 모바일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랩을 가입할 수 있는 '신한e랩 서비스'를 오픈 했다. '신한e랩 서비스'는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한아이 알파'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을 듣고 편리하게 모바일에서 랩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상품을 통해 기존의 랩 서비스보다 낮은 금액과 저렴한 수수료로 신한금융투자 전문가의 자산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어플리케이션 '신한아이 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반토막 난 반도체… 中에 쫓기는 모바일

삼성, 우울한 실적

반도체 산업 하락세 현실화 우려
올 상반기 D램 가격 20%하락 예상
스마트폰 성장 둔화 속 中업체 강세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산업 하락세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 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저조한 실적 원인을 메모리 사업 부진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이익 예상치는 7조원 수준, 전분기보다는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메모리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일부 고객사들이 재고를 조정하면서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감소했고, 메모리 출하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DRAM Spot Price (MORE)	Last Update: Jan.8 2019 11:00 (GMT+8) <Price Notice>						
Early notice was announced at 10:50 (10 minutes in advance) ,next session will start at 14:20.							
Item	Daily High	Daily Low	Session High	Session Low	Session Average	Session Change	History
DDR4 8G (1G*8) 2133/2400 Mbps	6.85	5.15	6.85	5.15	6.159	▼ -0.31 %	
DDR4 4G (512M*8) 2133/2400 Mbps	3.50	2.58	3.50	2.58	3.020	– 0.00 %	
DDR3 4Gb 512Mx8 1600/1866Mbps	2.75	2.40	2.75	2.40	2.562	– 0.00 %	
DDR3 4Gb 512Mx8 eTT	1.60	1.43	1.60	1.43	1.477	– 0.00 %	
DDR3 4Gb 256Mx16 1600/1866Mbps	2.75	2.45	2.75	2.45	2.617	– 0.00 %	
DDR3 2Gb 256Mx8 1600/1866Mbps	1.65	1.45	1.65	1.45	1.510	▼ -0.59 %	

D램 시세가 크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끼쳤다. 8일 기준 D램 시세. /D램익스체인지

실제로 8GB D램 가격은 지난 해 3분기 8달러를 넘어섰다가, 최근 6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1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전망도 암울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20%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반도체 산업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 불안을 조장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하면서다.

모바일 시장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는 가운데, 화웨이 등 중국 업체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저가 제품 비중 증가로 수익률이 떨어진 반면, 성수기를 맞아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은 증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 등 1회성 비용 지출도 4분기 저조한 실적에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단,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을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내다봤다. 재고 소진과 신규 CPU 확산,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삼성전자는 기술적 우위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으로 높은 경쟁력을 자신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스마트폰 OLED 패널 탑재가 증가하면서 사업 응용처를 확대하고, 무선사업은 5G와 폴더블폰 출시 등으로 실적 확대를 예고했다. 중저가 제품도 스펙을 강화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장 사업과 5G 통신, 인공지능(AI) 사업 성장도 점쳤다. 칩셋과 OLED 등 부품기술 등 사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예상 웃도는 '어닝쇼크'… 삼전 주가하단 3.5만원도

4분기 영업익 잠정치 10.8조 불과
주가 하루만에 650원·1.68% 하락

삼성전자가 발표한 4분기 잠정 실적은 증권사도 예상치 못한 '어닝쇼크(실적부진)'였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도 고꾸라졌다.

8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650원(1.68%) 하락한 3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전 삼성전자는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전망치보다도 낮은 실적에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하락한 채로 출발했다. 장중 한때 2%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4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는 10조8000억원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의 전망치 평균(13조4000억원)보다 10% 이상 낮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증권사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유안타증권도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일시적 서버 D램(Server DRAM) 구매중단과 더불어 중국 및 신흥국의 정보기술(IT) 제품 수요도 기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11조 9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또 지난달 27일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3조 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는데 이 보다도 낮은 실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의 경우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상 대비 반도체 부문과 모바일(IM) 부문에서 기대치 하회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 메모리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 내 공급 증가 속도는 재고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어주적 가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적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며 "반도체의 수급 악화와 스마트폰 사업의 구조적 난관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하반기까지도 완만한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 후 12개월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주가 하단까지 제시했다. 주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우선 KB증권은 삼성전자가 1분기를 저점으로 3만5000원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지난 달 20일 12개월 목표주가는 4만8000원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7.6% 하향 조정한데 이어 이날 실적발표 후 목표주가를 4만5000원으로 또 다시 낮췄다. 이어 하이투자증권(4만8000원→4만6000원), NH투자증권(5만4000원→5만원)도 목표주가를 내렸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27일 최저 주가수준을 3만5400원으로 제시하고, 목표가를 4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췄다. 또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6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15.8% 내렸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전망치보다 19.4% 낮은 5만8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다.

다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1분기 이후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정민 하나금투 연구원은 "4분기 실적 쇼크는 특별보너스 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폭풍속에서 흔들리는 돌다리 중 절반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당수익률이 보통주 및 종류주 기준으로 각각 3.6%, 4.4% 이므로 주가의 하방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적 하락에 따라 목표주가는 하향 조정하나 삼성전자를 반도체 대형주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9년 메모리 업종 실적의 '상저하고' 패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도 주가수익비율(PER) 7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교통요건 '꿀'… 환승역 역세권 단지 분양 '인기'

대림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인근에 3개 노선 지나는 신설동역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선릉·'환승' 선정릉역 도보권에

〈서울 환승역 역세권 분양단지 리스트〉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환승역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5구역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823(403)	39~109	지하철1·2호선 우이신설선 실설동역
강남구 역삼동 654번지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06	59~70	지하철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사당3구역 푸르지오	507(159)	41~106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자료=각 사(분양 정보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내집을 마련할 때 고려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교통여건이다.

그중에서도 '투 플러스 알파(Two+α) 노선' 즉, 환승역 단지가 인기다. 투 플러스 알파 노선은 1개의 역에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다. 당연히 분양시장에서 환승역 역세권 단지는 수요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승역세권은 1개 노선뿐인 역세권에 비해 집값 상승률도 더 높다.

실제로 마포구 '공덕더샵'은 4개 노선(5호선·6호선·경의중앙·공항철도)이 지나가는 환승역 공덕역 인근에 위치해 집값이 강세다. 역세권내 84㎡의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매매가는 13억2500만원이다. 이는 입주당시 평균매매가가 10억 3000만원보다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3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환승역 역세권 단지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림산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39~109㎡ 823가구 중 51~109㎡ 40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총 3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 신설동역이 가깝다. 2호선 상왕십리역이 도보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청계천과 성북천에 둘러싸여 있다.

시티건설은 같은 달 강남구 역삼동 654번지 일대에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59~70㎡ 아파트 106가구와 22~53㎡ 오피스텔 45실, 상업시설 10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비롯해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역삼점, 강남 차병원, 더라움 아트센터, 스포월4드 스포츠센터 등 의료·문화·체육시설들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도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일원에서 사당3구역 재건축 단지인 '사당3구역 푸르지오' 41~106㎡ 507가구 중 1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가깝고, 서리풀터널(2019년 예정)을 통해 강남 접근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